

From: Hong S Kim  
Sent: March 04, 2017  
Subject: 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고.

어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쓴 것입니다.

<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고.>

뜻하지 않게도 또 심장 문제가 생겨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해 돌아왔습니다.  
7 시간 장거리 운전 후 새벽 2 시경에 돌아 왔는데 두 시간 후쯤부터 가슴에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. 참을 수 있을 정도였었지만 아무래도 수상해 이른 새벽에 응급 실로 갔었는데 아나 다름까 심장 혈관 하나가 90%가 막혀있어 stent 응급 조치를 하였습니다. 참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좀 더 참아보지 했 더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. 증상을 아는 의사였기에 살아난 것 같습니다. 심장과 뇌졸 증 같은 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니까 수상하면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함을 remind 해 드리고 싶습니다.

18 개월전 큰 심장수술을 받고는 aspirin 과 cholesterol 내리는 약을 먹으라고 하였지만 많이 높지 않아 관찮으리라 생각하고 먹지 않으면서 의사에게는 먹 는다고 거짓말 하였지요. 사실대로 직고하며 자수 했더니 평상시에는 혹 먹지 않아도 관찮을 수도 있지만 수술 후에는 최소한 1—2년 정도는 반드시 먹어야 했다며 야단 맞았지요. 좀 안다고 자만심 가졌던 의사였기에 실수한 것이고요.

입원 해있는 동안의 집사람의 고마움 말하면 아부하는 것으로 보실 것 같아 다르게 표현 하렵니다. Wife 안 계시는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 몸 아플 때 어떻게 하실까 정말 걱정 되었습니다. 방문 역시 부담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도 부담 되기에 이번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우연히 몇 분에게 들켰지요.

참새 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관여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 는 모든 일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음을 믿기에 이번 일은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일까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

18 개월전 첫 심장 수술 받았을 때의 각오를 떠올립니다. 죽었다가 다시 산 목숨이기에 남은 여생은 이웃들에게 복음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것이었 습니다. 그런데 뒤돌아보니 다른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. 최근엔 최순실이다 뭐다 하여 온통 거기에 정신이 쏠려 있고요.

나라 일은 내가 알아서 어렵히 할 텐데 네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런데 만 정신 쏟 고 있느냐는 책망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.

주변 분들은 몸 건강에도 신경 쓰라고 충고해 주시지만 나는 죽을 준비 되어있 고 두렵지도 않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그런 충고 그냥 흘려버렸습니다.

그런데 우연히 들르신 선배님 기도를 해 주시면서 이곳에 복음 전해야 할 일들 이렇게 많은데 빨리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기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. 그렇구나. 내 건강은 반드시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.

우리 동네 추수 기다리는 곡식들 다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. 그 동안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골프댄스 등산 노래하는 건장한 군중들만 보였었는데 병원에 몇 일 있으면서 보니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줄을 지어 마지막 문 입장을 기다리는 군중들이 우리 동네 이웃들로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. 빨리 건강 회복하여 구원의 확신 있는 분들 모집하여 팀을 만들어 아직 확신 없는 이웃 분들 도와주기 캠페인 벌려야 될 필요성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.

막연하게 그냥 시간 보낼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쪼개서 내가 앞으로 1년 밖에 살지 못한다는, 또 내가 상대하는 그 분도 1년 밖에 살지 못하는 시간제약 가진 인생이라는 긴장감 늦추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 다시 해 봅니다.

시간 절약을 위해 메일들 보내는 것도 일반 것들은 가능한 한 자제 하고 보내려거든 새로 쓰기 보다 전에 써 두었던 것들 다시 보낼 생각입니다.

일반 알림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취급하지 않으려 하며 받는 분 숫자가 너무 많아 reject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메일 받으시길 원하지 않으신 분은 아무 때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제는 가장 급선무인 지옥 면하는 문제에 주 focus 를 맞추려 재 다짐합니다.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나 일반 성경공부는 각자가 선택한 교회들에서 하는 것 참여하시고 여기서 죄 사함 확신 없는 분들께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만 도와드리는 일을 하자는 생각입니다. 자신의 죄 사함 받은 경험을 확실히 얘기 해 줄 수 있는 우리들 중에서, 또 필요에 따라 외부 전도자 요청하 여서라도 개인적으로 또는 소 그룹으로 상담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

세월은 살과 같이 흐르는데 지옥 갈지도 모르는 바로 옆집 이웃 분들 못 본척 직무유기 하고 있는 나를 다시 보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 이번 입원의 의미로 받아드리려 합니다.

2017년 3월 4일 김홍식 드림.